




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변교회 마을이 외부 손님들을 맞이 하기 위하여 매우 분주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미국에서 의료 선교팀 (Mercy Clinic)이 방문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어린이 성경 학교가 시작하는 시간에 맞추어 마을 주민들을 진료하기로 하고, 교회안에 진료 과목별 테이블과 의자를 배열하고, 중앙에는 진료 대기석을 준비 했습니다. 교회가 좁은 관계로 진료 등록 및 사전 인터뷰는 교회 밖에 있는 마을 공터에서 하기로 하고 별도의 테이블을 준비 하였습니다. 현지어 통역을 위해서 해변 교회의 사모님이 다니시는 신학교에서 영어 이해가 가능한 학생 4명과 해변 교회 교인 2명이 진료 과목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료를 받는 주민들을 잘 안내하기 위하여 교인들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료 선교팀이 도착하기 이전이지만,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덩달아 신바람이 나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닙니다.

예정한 시간보다 30분 정도가 지나서 마침내 선교팀 차량이 마을 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해변을 끼고 마을이 형성된 이곳은 마치 달동네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마을 안으로 차량 진입이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 장비 및 약품을 실은 차량이 마을을 멀리 돌아서 정말 어렵게 마을 안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15명으로 구성된 의료팀이 도착 했습니다. 의사와 이들을 보조하는 의대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들을 보기만 해도 벌써 건강해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단기 의료 선교팀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이 미국을 떠나서 장장 3개월 동안이나 이곳 섬에 머무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계획에 의하면 이곳 섬의 낙후된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중에 저희 해변 마을도 매월 한번씩 3번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의료 선교팀에 참가한 이들 중에는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마치고 안식년을 맞이하여 미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곳에서 안식년의 일부를 또 다른 의료 선교로 헌신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곳에 와서 현지 여인들을 진료하는 중에 갑작스런 출산을 인도했던 의사는 아이의 엄마

와 함께 한 살이 된 아이를 다시 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대에 재학 중이면서 방학동안 이들을 섬기는 귀한 젊은 학생들을 보게 되어 참으로 감사 했습니다.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참여한 주민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후 진료전에는 의료 선교팀이 준비한 마을 주민을 위한 공중 위생 교육을 먼저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중에 키가 큰 의사가 ‘더러운 손’을 그린 그림과 ‘깨끗한 손’을 그린 그림을 들고 나와서 통역을 통해서 이들을 권면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으면 얼마나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하고, 모두들 손을 자주 씻기로 약속 합니다. 저의 짧은 이곳 생활이지만 손을 자주 씻는 것이 현지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임을 아는 까닭에 아주 적절한 위생 교육임을 확신 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줄을 서고, 진료 접수가 시작되고,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안과 등으로 분류가 되어서 진료를 받고, 마지막에는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받습니다. 아이들을 진료 할 때는 우는 아이들을 달래기 위하여 풍선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 주기도 하면서 모두들 즐겁게 맡은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가 아닌 저의 역할입니다. 특별한 역할이 없을 것 같아서 사전에 현지 목사님과 계획한대로, 최종 약품을 받고 나오는 환자들을 위하여 별도의 자리에서 한 사람씩 붙잡고 기도를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주민들이 아니기에 이번 진료를 통하여 이들의 고통이 치료됨은 물론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만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 혼, 육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여러 모양으로 이곳을 비추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 4:2)**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 yeonji_park@wycliffe.org



이곳에서 추수 감사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보내고, 새해 첫날을 보내고, 자녀들과 저희들의 생일을 지날 때마다 만감이 교차하곤 합니다. 이 특별한 날에 식구들이 함께 모여 절기를 기념하며, 생일을 축하하며,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가족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데, 서로 멀리 떨어져 인터넷을 통하여 아쉬운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적지않은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금년 새해에도 인터넷 카메라를 통하여 저희 두 아들로부터 장거리 새배를 받았습시다. 또한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저의 생일을 가족과 떨어져 혼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내가 알려준대로 미역국을 끓이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이 제가 보아도 궁상맞고, 처량해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 저의 생일은 평일이 아니라 주일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덜 외로움을 탈 것이라는 생각으로 좀 더 일찍 마을로 들어 섰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부터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로부터 전혀 기대치 않았던 저의 생일 축하 인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저의 생일에 대하여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모두들 저에게 주목하며 따뜻하게 생일 축하를 해 주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에 들어서니 목사님이나 교인들은 저의 생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인사로 반갑게 대합니다. 마침내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배당으로 촛불을 켜 생일 케익이 들어오고, 전교인이 저를 위하여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과 미리 서로 약속을 한 그야말로 '서프라이즈'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 교인이 저를 위하여 진한 축복 기도를 해 주고, 정말 정성껏 준비한 생일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축하의 말을 들었지만 특별히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말에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한 가족이 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엡 3:6)



이곳 선교 캠프가 학교의 방학과 함께 자연스럽게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보내기 위하여 고국으로 떠나고, 안식년을 마친 선교사들이 또 다시 돌아오고, 또한 새롭게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동이 많은 기간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더욱 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컴퓨터 관련 장비의 약 25% 정도를 이번 기간동안 교체를 하고, 프로그램도 보강을 하며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독특한 환경으로 인하여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곳에서 어린 아기를 키우며 힘들게 사역하는 젊은 선교사들의 결단과 헌신 앞에서 저의 어려움은 너무도 작게 보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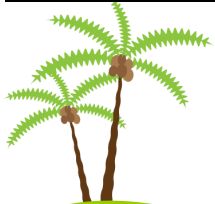
8월초에 이곳에서 팀 사역을 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사역을 점검하는 모임이 2박3일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부족한 저도 작년에 이어 제가 관여하는 분야에 대하여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준비 중입니다.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성경 번역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